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3~14).



교회의 아픔을  
제자훈련으로 치유합니다



김병태 목사는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상담학, 선교학을 전공했다.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섬김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등 다수가 있다.

복음은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130년 역사 가운데 과연 지금처럼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진 상처로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었을까? 교단의 차원만이 아니라 개 교회 가운데에서도 분쟁,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빛의 속도로 빨라진 통신망을 타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들은 자기들의 상처로 인해 다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상처 입은 영혼, 깨어진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즐비한 이런 한국 교회의 상황 가운데 과연 제자훈련은 교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을 던질 수 있을까?

이번 달 <디사이플>은 제자훈련이야말로 교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임을 실제로 경험하고 지금도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한 교회를 찾았다. 바로 성천교회다. 이 교회 담임 김병태 목사로부터 훈련을 받은 제 7기 사역훈련생 이영혜 집사는 상처 입고 깨어진 교회의 성도에게 제자훈련이 치유책이 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자훈련에는 성경공부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회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 답은 제자훈련이다

김병태牧사는 2002년 12월,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에 위치한 성천교회(예장 합동)에 4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1971년에 개척된 성천교회는 특이하게도 14년마다 담임목사가 꼭 바뀌었다. 3대 목사였던 김성주 목사 역시 14년간의 사역을 접고 2001년 12월에 사임했고, 이후 4대 목사로서 김 목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성천교회에는 담임목사가 공석이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평안할 리가 없었다. 교인들 가운데 깊은 반목이 발생했고, 장로 재신임투표를 둘러싸고 노회와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교회 내에는 세 분파가 생겨 갈등이 생겼고, 노회와 총회에 고소, 고발하는 것으로 모자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파벌 사이에 몸싸움도 일

어나는 등 상황은 심각했다.

교회는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당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노회와 교회가 등을 지는 상황이어서 공동의회를 할 수 없었으니 당연히 담임목사 청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었다. 1년 동안 그런 과정을 겪은 후 2002년 12월에 드디어 김 목사가 부임했다.

김 목사는 정식으로 부임하기도 전에 성천교회의 갈등 가운데 휘말려 들어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김 목사가 성천교회의 담임목사로 지원을 한 것은 2002년 3월의 일이었다. 그런데 12월이 되도록 성천교회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고, 김 목사는 세 번의 설교와 두 번의 인터뷰 끝에야 부임하게 되었다.

담임목사 청빙이 지연되는 가운데 김 목사의 갈등은 심했다. 당시 역삼동 충현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사택을 비워줘야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김 목사는 그 당시를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아도 눈물이 글썽그렸다’고 회고한다. 결국 담임 목회지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부목사로 한 팀을 더 사역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가정에 대한 책을 두 권이나 출판하였기에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지원했다. 고(故) 하용조 목사와 인터뷰 끝에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섬길 문이 열렸다. 39세의 나이였기에 온누리교회에서 가정사역에 대한 꿈을 펼쳐가는 게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랫동안 미결정이었던 성천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이 결정되었다. 성천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부임을 결정한 지 몇 시간 후에 온누리 교회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김 목사는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움을 벌였던 상처 많은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느냐, 아니면 다시 대형 교회로 부임하여 가정사역에 대한 비전을 더 넓혀갈 것이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결국 담임목사의 길을 선택했다.

물론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겠지만, 김 목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천교회에 부임할 생각을 했을까? 놀랍게도 김 목사는 성천교회에 부임하면서 “답은 제자훈련이다”라는 확고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한다. 제자훈련으로 이 교회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비전을 품었다는 이야기다.

김 목사가 성천교회에 부임할 때에 제자훈련을 목회철학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그에게 캠퍼스 선교단체나 대학청년부에서 훈련을 받은 경험도,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의 사역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 청년사역을 통해 익혀간 한 사람 철학

김 목사가 성천교회에 부임할 때에 제자훈련을 목회철학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그에게 캠퍼스 선교단체나 제자훈련이 정착된 대학청년부에서 훈련을 받은 경험도,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의 사역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김 목사의 신앙 이력을 잠깐 살펴보자. 그는 7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그에게 “중학교 가지 말고 대구에서 돈을 벌라”고 하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는 신앙생활도,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으로 자랐다. 어려운 형편을 딛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때 깊은 은혜를 체험한 후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했고, 그때부터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목회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막상 대학을 진학할 때에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목회의 길을 접어두고 가족들의 바람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일에 적합할 것 같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그렇게 서울에 올라온 그는 전교인이 100명 남짓 되던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몇 년씩 연임하며 거의 전임 전도사나 다름없이 교회를 섬겼다.

그러던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취업을 준비하다가 다시 주님께서 목회의 길로 부르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부르심에 순종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 이후 서울과 대구의 몇 교회에서 2~3년씩 주로 청년부를 담당했고, 충현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30년의 역사를 가진 성천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런 그의 이력만을 본다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충성하던 한 청년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갈등을 딛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고, 부름 받은 곳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능력과 열정을 인정받아 대형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결국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 아주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전통 교회 목회자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계기로 제자훈련에 대한 이런 강한 확신을 얻게 되었을까?

김 목사가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대학 시절, 청년으로서 교회를 섬겼던 기간과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 생활을 하던 기간에 체득했던 것이 전부였다. 김 목사도 자기 입으로 “훈련받지 못한 제자가 제자훈련을 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청년들과 함께했던 제자훈련을 통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훈련의 정신을 목회의 본질로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때 김 목사는 청년들과 삶을 공유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았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이 어떤 단체를 통해 체계화된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제자훈련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제자훈련이 예수님의 사역 원칙이었고,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다. 그리고 제자훈련이란 어떤 특정한 커리큘럼을 이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것을 본받아 ‘함께함’에 그 본질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목사가 청년사역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본질을 파악했고, 그것을 단지 청년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니라 이후 자신의 목회철학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가 제자훈련을 하나의 유용한 방법론이나 사랑의교회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현교회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의 일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김 목사는 충현교회에서 교육 훈련을 맡은 부목사로 5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제자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서를 올렸다. 그러나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결국 아쉬움을 남긴 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전통목회의 총본산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사역하는 부

목사가 교회에 제자훈련을 도입하자고 제안서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 김 목사는 그 경험이 오히려 자신에게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꼭 제자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 전통 교회에는 제자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 목사는 2002년 12월에 성천교회에 부임할 때부터 이미 제자훈련을 성천교회에 접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계획은 “전통 교회 목회를 위해서는 제자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청년사역을 통해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느꼈다고는 해도, 전통 교회에서 자라나 전통 교회의 총본산이나 다름없는 교회의 부목사로 5년이나 섬겼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담임목사로 부임했다는 것이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다. 김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전통 교회에는 제자훈련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전통 교회에 부임한 목사로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접목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여기서 장기간 목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성천교회처럼 전통 교회의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일수록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혼란 가운데 현재만 겨우 유지할 뿐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천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기존 전통 교회에서 장기 목회가 불가능합니다.”

### CAL세미나, 본질을 붙잡다

무익한 일이긴 하지만, 만약 김 목사가 이런 생각만을 가진 상태로 성천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제자훈련 경험은 젊은 사역자로서 청년들을 이끌었던 것뿐인 상황에서 깨어지고 상처 많은 교회에 부임한 39세의 담임목사가 제자훈련을 자기 목회철학으로 삼고 추진했다면, 솔직히 그리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때 김 목사에게는 귀한 한 명의 동역자가 있었다. 성천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목회하려는 결심을 하고 있던 김 목사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신앙을 키워온 동무이자 같이 충현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사랑의교회로 사역을 옮겼던 조칠수 목사(현 일산 하나님의교회 담임목사)가 힘을 주었다.

그는 김 목사에게 CAL세미나에 참석하여 제자훈련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제자훈련을 시작할 것을 권면했다. 조 목사의 말을 듣고 CAL세미나에 참석한 김 목사는 첫날 옥한흠 목사의 광인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CAL세미나를 통해 오히려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을 전통 교회, 지역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천교회에 바로 이식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김 목사는 CAL세미나를 통해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에 대한 열정을 배웠다. 그리고 사랑의교회나 기타 제

자훈련을 잘한다는 교회를 따라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님을 깨달았다. 39세의 젊은 담임목사였던 그가 조급증에 휩싸이지 않고 제자훈련의 본질을 붙잡고 우직하게 황소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던 데 CAL세미나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향하여

처음 성천교회에 부임할 당시를 회고해달라는 말에 김 목사는 한 마디로 “추웠다”고 답한다. 때가 12월이었으니 날씨도 그랬겠지만 교회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냉랭했다.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고, 지역 사회가 성천교회를 보는 눈길도 마찬가지였다.

이 한 마디 표현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그가 성천교회의 4대 담임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전임 목사 때부터 계속되었던 교회와 노회, 교인과 교인 사이의 갈등은 찾아들지 않았고, 부임 이후에도 김 목사는 노회와 교회 중간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부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그가 느꼈을 부담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 딱 적절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맡으면서 이 다툼과 갈등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로 갈등하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서로 자기 파벌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게 마련이지만, 목회자가 그 싸움에 휘말려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따지거나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동분서주하기만 한다면 결국 그 목회는 오래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이 다툼과 갈등으로 향한 관심의 방향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돌려야 했다. 그 절실한 필요 앞에서 김 목사는 전통목회 패러다임을 가지고서는 이 관심의 방향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그가 부교역자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절감한 것이기도 했다. 김 목사는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교인들의 관심을 ‘영혼’에게로 돌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 “함께 튕구는” 토양 정비 작업

성천교회에 제자훈련 목회를 접목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김 목사는 우선 새가족부를 신설하여 4주간의 양육과정을 만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천교회에는 새가족 양육과정이 따로 없었고, 새신자가 들어오면 교역자가 한 번 만나고 심방하는 정도로 끝이었다. 김 목사는 교회당에 새가족실을 만들고 새가족 교사를 양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김 목사와 부목사들이 직접 인도하는 나눔 중심의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제자훈련의 토양을 다지기 시작했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고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그런데 전통 교회의 방식, 즉 심방목회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만남은 자주 이루어지지만 성도들 사이의 유기적인 결합은 쉽지 않은 형태이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마치 부챗살처럼 이뤄진다면, 성도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물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목회자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 자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김 목사는 제자훈련의 토양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큰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소그룹 성경공부로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역들, 즉 문화교실이나 단기선교, 낙도선교, 농어촌선교 등 필드 선교훈

김 목사는 자신의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뒹구는” 방법을 사용했다. 마치 그가 젊은 시절 청년들과 사역하면서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했던 것처럼 말이다.

련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교인들이 서로 부대끼고 함께 뒹구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일단 전통목회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였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전 단계가 쉽지만은 않았으며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전통적인 심방목회의 한계를 인식하고 어떻게든 현대목회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그와 달리, 성도들은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가 심방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왔다. 또 교회의 체질 개선을 위해 소그룹 성경공부를 비롯한 해외단기선교, 낙도선교, 농어촌선교, 새생명축제, 중보기도사역, 바나바사역, 문화교실 등의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열심히 성도들을 독려했지만, 성도들 사이에는 “이전에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 “새로 온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다 보니 목사는 열심히 뛰는데 교인들은 관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김 목사도 처음 이 1년 반 동안의 기간을 ‘장단점이 있었던 기간’이라고 평가한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김 목사가 부임 초기에 이런 여러 사역들을 교회에 시도했던 것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김 목사는 그 기간의 경험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김 목사는 처음에 이처럼 비교적 큰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고, 그 관심을 교회의 본질적인 방향으로 바꿔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회적으로나 목회자 개인적으로나 지금까지 없었던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교회의 체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다.

여하튼 김 목사에게는 전통 교회, 특히 당회 안에 고착되어져 있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제자훈련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김 목사는 자신의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뒹구는” 방법을 사용했다. 마치 그가 젊은 시절 청년들과 사역하면서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했던 것처럼 말이다.

### 양육 커리큘럼: 성장반, 확신반

지금 성천교회의 커리큘럼은 새가족반 4주와 확신반 14주(6개월), 성장반 14주(6개월), 제자훈련(1년), 사역훈련(1년)까지 총 3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자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14주씩 확신반과 성장반이라는 양육 프로그램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교회에 이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부임 후 1년 반 동안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제자훈련을 위한 터다지기를 해보았지만, 아직 제자훈련 시작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소그룹 성경공부를 하면서 드러난 첫째 장벽은 다들 설교만 들었던 사람들이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직접 문제에 대한 답을 파악해내는 것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었다. 처음 훈련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안 교회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었고, 설교나 강의를 듣는 데에만 익숙했기에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답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둘째 장벽은 성도들 사이에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마음의 벽이었다. 같은 소그룹 안에 속했으면서도 성도들은 쉽게 마음을 열려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상처로 돌아오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덕”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은 아예 삶을 나누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만큼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에서 서로 갈등하고 재판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데다가 서로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미 분파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섞이기가 어려웠다. 거기서 더 깊은 나눔을 요구하는 제자훈련으로 들어간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셋째 장벽은 성도들 간의 교육 격차였다. 성천교회 교인들 중 젊은 층은 그래도 학력이 높지만, 장년층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거나, 교육 수준에 맞춰서 따로 제자반을 편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중에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들까지 있었지만 그들도 제자훈련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제자훈련을 바로 시작하기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다. 김 목사가 제자훈련의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1년 반 동안 소그룹 성경공부 및 여러 활동들을 통해 이런 문제가 있음을 미리 파악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 전 양육 프로그램의 필요를 깨닫고 처음에는 제자교회의 성장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새가족반을

마치면 성장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이후에 제자훈련을 받도록 계획한 것이다. 1기 제자훈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작 1기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제자반을 시작해 보니 훈련생들은 큐티부터 어려워했다.

김 목사는 큐티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해 큐티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큐티 소그룹을 만들어 보기도 하다가 성장반 이전에 큐티를 포함한 초보적인 코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각자의 삶을 조금만 오픈하는 단계인 확신반을 만들었는데, 큐티 교육과 함께 네비게이트의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사용하는 12주짜리 커리큘럼을 시작했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

성천교회에서 만난 사역훈련생들은 확신반을 많이 언급했다. 어떻게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지금 사역훈련을 받고 있는 이영혜 집사는 “나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확신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거의 반강제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 사역훈련까지 오게 됐어요”라고 고백한다.

김 목사도 “일단 확신반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확신반만 제대로 마치면, 그 다음 단계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처음보다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양육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김 목사는 전통 교회에 제자훈련을 접목하고자 하는 목회자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라고 했다. 첫째는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라는 것이다. 그리

고 둘째는 제자훈련을 위한 토양을 분석하고, 절대 그냥 제자훈련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과 같이 전통 교회에 제자훈련을 접목하려 했던 동역자 중 제자훈련을 바로 시작하려는 목회자가 있어 만류했지만 자신의 권유를 듣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는데, 결국 그 교회는 2년 만에 제자훈련을 포기했다면서 토양분석과 적응기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성천교회는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독서 과제는 소책자로 많이 바뀌서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배려했다. 그리고 확신반, 성장반, 큐티 훈련 등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자훈련을 토착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로 삼다

그러나 과연 성천교회에 제자훈련을 뿌리내리기가 그렇게 쉬웠을까? 앞서도 말했듯이, 39세에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디 잘하나 보자”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김 목사는 아쉽게도 제자훈련을 당회부터 시작하지 못했다. 당회원들부터 제자훈련에 동참시키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제자훈련 목회를 진행해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

당회와 안수집사회에 제자훈련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그들의 반응은 주일 오후에 한 시간 정도 모이는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제자훈련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훈련을 포기하고 새로 뽑힌 임직자들을 먼저 제자훈련 하는 방법으로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당회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었고, 그는 오직 인내로써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 인내의 기간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7기 제자반이 끝났고 7기 사역반이 진행되고 있지만, 8기 제자반은 뽑지 않았다. 확신반, 성장반, 그리고 사역반은 진행되고 있지만 제자반은 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시발점이 있다. 김 목사의 건강과, 당회 내에 아직도 남아있는 반대의견이다.

“일주일에 제자반과 사역반 네 반을 인도하고 과중한 설교

사역을 계속해오다 보니 성대결절이 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게다가 당회에는 제자훈련이 무슨 특별한 열매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지요. 그러나 자신감이 생긴 저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자훈련 안 하겠다’고 내려놓았지요.”

잠시 제자훈련을 중단했지만 김 목사는 제자훈련이 계속 이어져 가리라는 것을 낙관하고 있다.

“이는 사실 의도적인 휴식입니다. 제 건강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한 번 쉬는 기간을 둬으로써 하다가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훈련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목소리가 교회에서 커질 것입니다. 실은 이미 성장반을 수료한 분들로부터 제자반이 왜 개설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에 대해 교회 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고, 오직 조용히 입소문이 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지금은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자훈련이 홍보되고 있다.

김 목사는 이번 휴식 기간을 자기 건강도 돌보고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이만큼 요청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내는 기간으로써 상당히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역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비하면 이 정도 어려움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전통 교회에 제자훈련을 접목하고자 하는 목회자에게 첫째는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고 둘째는 제자훈련을 위한 토양을 분석하고, 절대 그냥 제자훈련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깨어지고 상처받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김 목사는 1기 제자훈련생들이 아니었으면 자신 역시 제자훈련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여기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 제자훈련생들이 아니었으면 자신 역시 제자훈련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여기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1기 제자훈련을 마친 상황에서 김 목사의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공격이 당회 내에서 격해졌을 때 김 목사의 마음에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대자들은 없는 이야기를 지어 소문을 내서 공격하기도 했다.

김 목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마친 성도들이 이미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 교회의 각 부분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갈라진 부분을 메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들이 누구보다도 더 제자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성전교회에서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수료한 일꾼들이 가정사역개발팀, 선교개발팀, 전도팀, 스포츠팀, 문화사역팀 등 각종 소그룹을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구역과 전도회에서 이제 정치가 아닌 성도의 교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이미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와 함께 헌혈운동, 장기기증서약운동이 이들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김 목사는 이 모든 것이 조급하게 달려들지 않고, 황소걸음으로 꾸준히 일구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한다.

### 훈련받은 제자들이 변화의 동역자가 되다

깨어지고 상처받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제자훈련의 열매, 그 훈련된 사람들이 바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었다. 김 목사는 1

그때 1기 제자반 훈련생들이 “목사님이 여기서 제자훈련을 포기하시면 목사님의 목회가 다 무너진다”며 제자훈련을 계속해 갈 것을 격려했고, 당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시작했던 제자훈련 목회는 그렇게 1기 제자훈련생들의 격려에 힘입어 2기, 3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단순히 훈련생들이 김 목사의 편에 섰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 목사는 그 과정 가운데 훈련생들이 변화되고 치유를 얻는 경험이었다면 벌써 제자훈련을 포기했을 것이라며 제자반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소개했다.

제자반 방학 후 첫 모임이었다. 방학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한 여자 훈련생이 자신의 아픈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지체들은 이내 휴지를 챙겨주고 함께 아파하면서 눈물을 닦았다.

김 목사는 제자반 지체들에게 그 훈련생을 꼭 안아주라고 격려했다. 그러자 모두 일어나 그녀에게 가서 그녀를 꼭 껴안았다. 서로 부둥켜안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모두 눈물로 범벅이 되고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연결되는 하나됨과 치유하심을 경험했다.

몇 주가 지났다. 어느 날 큐티를 함께 나누는 시간에 그 훈련생이 말했다. “그때 이후로 부모님을 대하는 데 부담이 없어졌어요. 너무 편안해졌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제자훈련에는 성경 지식을 나누고 영적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사역이 동반되었다. 김 목사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은 이렇게 제자훈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동역자로 사역해 준 데에 있다고 말한다. 이제 이런 일은 제자훈련을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훈련 시간에는 아예 화장지를 곁에 갖다두고 시작한다.

또 제자훈련은 반대의견을 가진 성도들까지도 소중한 동역자로 만드는 힘을 갖고 있었다. 특별히 제자훈련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중직으로 피택되어 어쩔 수 없이 제자훈련에 동참하였다가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이해하면서 소중한 평신도 동역자로 변화된 사례가 있다. 처음에 그는 김 목사가 부임할 때부터 팔짱을 끼고 관망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김병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훈련 후 고등부 부장을 역임하면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교회의 일꾼이 된 그는 김 목사의 목회철학을 변호하는 대변인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다.

제자훈련 수료자가 꾸준히 배출되자 안수집사들은 ‘진작 제자훈련을 받았어야 한다. 중직자들은 제자훈련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자훈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수료자들이 각 전도회에 가서 제자훈련에 대해 소문을 내는 일도 벌어졌다.

교회 분위기 또한 달라졌다. 예전에는 젊은 층들이 늘 패잔병처럼 교회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외부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교회의 중심은 장로들과 권사들일 뿐, 젊은이들은 늘 바깥으로 돌았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시작한 이후, 젊은 층들이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그저 청중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담임목사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와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

이제는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이 당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새롭게 세울 장로 후보자들도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친 분들로 채워졌다. 김 목사는 이제야 당

회가 제자훈련의 동역자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아직 제자훈련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장로도 있지만, 당회에는 중직자가 되는 자격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수료할 것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올라가 있다. 김 목사는 곧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천교회 제자훈련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볼 일이다.

### 겸손, 인내, 그리고 열정

성천교회와 김병태 목사는 아직 진행형이지만, 성천교회에서의 김 목사의 10년 사역과 제자훈련이 교회를 치유하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를 치유하는 사역자로서 지름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결국 제자훈련은 목회의 본질을 붙잡는 사역이고, 그 본질은 누구보다도 제자훈련을 실천하는 목회자의 삶과 인격으로 구성된다. 김 목사에게는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나 강력한 친화력, 또는 정치력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겸손과 인내, 그리고 목회의 본질을 제자 삼는 사역에 두고 있는 열정만이 느껴졌다.

김 목사가 충현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장로님이 김 목사를 보고 “목사님은 사역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라고 했다고 한다. 그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으로 꽉 짜여 있는 일정 가운데서도 직분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책을 저술하고, 신학교에서 후배들에게 강의하는 것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김병태 목사의 성천교회 사역은 열정을 바탕으로 하여 겸손과 인내로 걸어온 십자가의 여정이었다. 아직 김 목사가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인다. 우선 김 목사는 성천교회를 제자훈련 위에 튼튼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사역과 지역 교회를 치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사역을 세워갈 것을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다.

김병태 목사의 제자훈련은 2002년 12월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에서 느껴졌던 그 차가움을 녹이고, 지역 사회가 더 이상 성천교회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성천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땅을 치유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박희원 목사)